

한국 동굴의 환경파괴

김 용 환

1. 서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굴자원을 개발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예가 많다. 화산동굴의 만장굴과 협재동굴, 석회동굴의 고수굴, 고씨굴, 천곡동굴 등을 비롯한 7개의 동굴이 개방되어 있다.

이러한 개방 동굴들은 국가 또는 개인의 소유에 의해서 관리 보존되고 있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훼손되기도 하고 일부는 파손의 정도가 지극히 심한 정도에 이르기도 하고 있다.

한편 일부 개방되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동굴의 경우는 대부분 그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고 하겠으나 훼손과 파손의 정도가 더욱 심한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다시 한번 동굴 지형지물의 훼손과 파손과정을 살펴보고 훼손과 파손의 실태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모두 동굴의 환경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2. 동굴의 환경훼손과 파손

동굴의 개방 이후 인간의 부단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동굴에서는 동굴내부의 지형지물들이 오손되거나 파손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동굴에서는 그러한 노력조치 기울이지 않고 방치해두고 있어서 그 상태는 매우 심각하거나 인명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더욱 철저한 환경관리에 대한 대책의 마련과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통하여 동굴의 환경보존에 힘써야 하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리적 입장에서의 후손에게 물려줄 중요한 관광자원으로서의 인식과 보존하겠다는 의식의 함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